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8월 23일(월)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노인정책과	담당자	• 장사문화팀장 김창현 ☎440-2831 • 담당자 김영대 ☎440-2832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묘는 온라인으로...인천가족공원 추석명절 ‘잠시 멈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성묘객 안전 위한 특단의 조치 -
- 추석 명절 기간(9.18.~9.22.) 모든 시설 폐쇄, 화장장은 정상 운영 -
- 9월 13일부터 온라인 성묘 상시운영, 서비스 개선하고 확대해 -

올 설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인천가족공원 성묘객들은 직접 방문해 성묘하는 대신 온라인 성묘를 이용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확산 급증에 따라 성묘객들의 안전을 위해 올 추석명절기간인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화장장을 제외한 인천가족공원의 전 시설이 ‘잠시 멈춤(임시 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 15만의 고인이 안치된 인천가족공원은 명절 연휴 약 35만여 명의 성묘객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장사시설로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특성상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고강도의 코로나19 방역이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1일 수천 여명의 확진자 지속 발생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추석 명절 전국 각지에서 가족단위 성묘객이 집중 방문할 경우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올 추석명절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성묘객들의 방문이 많은 인천가족공원을 부득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화장장은 정상 운영된다.

추석명절기간 인천가족공원을 폐쇄하는 대신 지난 설명절에 이어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9월 13일부터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가족공원 온라인성묘 홈페이지(<http://grave.insiseol.or.kr>)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설명절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 추석부터는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상시 온라인 성묘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온택트(ontact) 효도로 한 차원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천가족공원 온라인 성묘 시스템’은 지난 설명절(봉안당,봉안담, 자연장)과 달리 성묘대상 고인을 확대하고(가족묘, 계단식묘 추가) 온라인 장사시설 둘러보기 확대(기존 : 공원입구⇒봉안당 입구, 변경 : 공원입구⇒안치단), 온라인 차례지내기 등을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왕래가 어려운 추석을 맞아 가족·친지간 안부를

묻고 확인할 수 있는 동시 접속 커뮤니티(메신저)를 신규 운영해 찾아
뵙지 못하는 가족·친지간의 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유대감 형성
에 주력했다.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안내문자 발송 및 주변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인천가족공원 폐쇄조치 등을 안내할 예정이
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추석명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최대 위기상황이 될 수 있어 확산 저지를 위한 잠시 멈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 및 성묘객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연휴
동안 인천가족공원 폐쇄를 결정하게 된 만큼 인천 시민은 물론 성묘
객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인천가족공원 방문 대신 온라
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